

담양 재월리 백제고분과 그 출토유물 潭陽 齋月里 百濟古墳과 그 出土遺物

崔 夢 龍

目 次

一. 序	ㄷ) 鐵槍
二. 古墳의 構造	라. 銅鏡
三. 出土遺物	마. 裝身具: ㄱ) 指環
가. 土器: ㄱ) 有蓋盒(蓋杯)	ㄴ) 耳飾
ㄴ) 平底短頸壺	ㄷ) 曲玉
나. 馬具: ㄱ) 鐙子	ㄹ) 유리구슬
ㄴ) 馬銜(재갈)	四. 圍石墓의 存在
다. 武器: ㄱ) 大刀	五. 圍石墓의 年代問題
ㄴ) 小刀	六. 結 言

1. 서(序)

전라남도(全羅南道) 담양군(潭陽郡) 봉산면(鳳山面) 재월리(齋月里) 일구(一區) 뒷편 야산(野山)(寫眞 1)에서 전칭(傳稱) 장군총(將軍塚)이라 불리워 온 백제고분(百濟古墳)이 발견(發見)되어 그 출토유물(出土遺物)이 전남대학교(全南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 이전(移轉)된 것이 지금부터 18년전(年前)인 1959年 5月 22日 이었고 당시(當時)의 유물수습자(遺物收拾者)는 김창호(金昌浩)(당시(當時) 전남대박물관장(全南大博物館長))·양희채(梁會采)(현(現) 담양군(潭陽郡) 축산협동조합장(畜産協同組合長))·이원복씨(氏) 등(等) 3인(人)이었다.

박물관(博物館)에 옮겨져 현재(現在)에도 전시(展示)되고 있는 유물(遺物)은 토기(土器)·마구(馬具)·무기(武器)·동경(銅鏡) 및 장신구(裝身具) 등(等)인데 이들 유물중(遺物中) 동경(銅鏡) 이점(二點)(변형육수경(變形六獸鏡)과 백유경(百乳鏡))이 1963年 광산군(光山郡) 비아면(飛雅面) 신창리(新昌里) 소재(所在) 옹관묘지(甕棺墓地)를 발굴(發掘)하러 내려온 서울대학교(大學校) 김원룡(金元龍) 교수(教授)에 의(依)해서 그 중요성(重要性)이 인정(認定)되어 학계(學界)에 소개(紹介)되었다.¹⁾

그러나 이제까지 이들 출토유물(出土遺物)만을 알 수 있었을 뿐 유물(遺物)이 출토(出土)한 고분(古墳)의 위치(位置)·구조(構造) 및 그 출토상황(出土狀況)을 알 수 없었는데, 최근(最近) 우연히 박물관(博物館) 창고를 정리(整理)하던 중 유물수습(遺物收拾) 당시(當時) 당사자(當事者)들에 의(依)에 작성(作成)된 약도(略圖)를 발견(發見)하게 되었다. 도면(圖面)은 유물(遺物)의 출토상황(出土狀況)·위치(位置) 및 구조(構造)를 간단(簡單)하게 스kets한 것인데(插圖 1) 이것만으로서도 고분(古墳)의 개략(概略)을 추측(推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當時) 참가자(參加者)의 한사람인 양희채선생(梁會采先生)과 함께 현장(現場)을 다시 답사(踏查)하여, 발견(發見) 당시(當時)의 상황(狀況)

을 뒤늦게나마 비교적 상세(詳細)하게 파악(把握)할 수 있었다.

이 고분(古墳)은 그 출토유물(出土遺物) 뿐 만이 아니라 그 구조면(構造面)에서 특이(特異)한 점(點)이 주목(注目)된다 하겠다. 즉(卽), 이 고분(古墳)은 지하(地下)에 토양(土壤)을 파고 동서벽상부(東西壁上部)에만 6매(枚)씩 석재(石材)를 돌려 구획(區劃)한 뒤, 그 위에 간단(簡單)한 봉토(封土)를 씌운 위석묘(圍石墓)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형식(形式)의 백제고분(百濟古墳)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最近) 백제초기(百濟初期)에 해당(該當)하는 이러한 위석묘(圍石墓)가 나주군(羅州郡) 다도면(茶道面) 마산리(馬山里) 2구(區) 쟁기머리²⁾에서도 3기(基)가 발굴조사(發掘調査)된 바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백제고분(百濟古墳)의 새로운 양식(樣式)의 하나인 위석묘(圍石墓)를 담양군(潭陽郡) 봉산면(鳳山面) 제월리(齋月里)의 예(例)를 들어 간략히 소개(紹介)해 보고자 하며 아울러 여기에서 출토(出土)된 유물(遺物)로서 위석묘(圍石墓)의 년대(年代)를 설정(設定)해 보고자 한다.

2.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이 고분(古墳)은 담양군(潭陽郡) 봉산면(鳳山面) 제월리(齋月里) 뒷편 야산(野山)(표고(標高) 약(約) 20m)에 위치(位置)하고 있는데, 이 곳은 일찌기 선사취락지(先史聚落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다.³⁾

현재(現在) 고분(古墳)은 파괴(破壞)되어 흔적(痕迹)조차 찾을 수 없으나 1959年 작성(作成)된 유물배치평면도(遺物配置平面圖)(挿圖 1. 수정도면참조(修正圖面參照))와 현지조사(現地調査)에 의(依)하면, 산사면(山斜面)에 동서(東西) 172cm 남북(南北) 189cm 깊이가 약(約) 20~30cm 가량의 얇은 토광(土坑)을 파고 동서(東西) 양벽(兩壁)의 턱 위에만 길이 30~40cm 정도의 부정형할석(不定形割石)을 일단(一段) 놓아 구획(區劃)을 짓고 있다. 따라서 이 고분(古墳)은 남북장축(南北長軸)이 동서장축(東西長軸)보다 약간 길며, 두향(頭向)은 유물(遺物)의 배치상황(配置狀況)으로 보아 북침(北枕)이 되겠다.

고분(古墳)의 내부(內部)에 목곽(木槨)을 사용(使用)한 흔적(痕迹)이 없었던 점(點)으로 보아 시체(屍體)를 그대로 부장품(副葬品)과 함께 안치(安置)한 후 상부(上部)에 목개(木蓋)를 횡가(橫架)해 덮고 그 위에 다시 간단한 봉토(封土)를 씌웠을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부장품(副葬品)을 보면, 북벽(北壁) 중앙(中央) 가까이에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1점(點)을 놓고, 머리가 놓인 좌우측(左右側)에 금동제세환(金銅製細環)(이식(耳飾))이 한쌍 있으며, 목의 위치(位置)에 해당(該當)하는 곳에 곡옥(曲玉)과 유리구슬이 4점(點) 놓여 있다. 그리고 손가락의 위치(位置)에 지환(指環)이 한쌍, 동서우(東西隅)에는 철창(鐵槍)과 유개함(有蓋盒) 4점(點)이, 머리의 좌우(左右) 이식(耳飾)에서 20cm가량 떨어진 곳에 동경(銅鏡)이 각각(各各) 한점(點)씩 놓여 있다. 또한 북향(北向)하고 누운 시신(屍身)을 중심(中心)으로 오른쪽에는 대도(大刀)와 소도(小刀)가 끝을 남쪽으로 하고 놓여 있으며 그곳에서 좀더 서벽(西壁) 가까이에 철제등자(鐵製鐙子)와 마함(馬銜)(재갈)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유물(遺物)의 평면배치상태(平面配置狀態)로 미루어 보건대 주인공(主人公)인 피장자(被葬者)는 그 키가 160cm내외(內外)이며, 귀에는 금동제(金銅製) 이식(耳飾)을, 목에는 곡옥(曲玉)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유리구슬이 달려있는 목걸이를 하고, 양(兩)쪽 손에

는 금동제(金銅製) 반지(指環)를 끼고, 머리를 북(北)쪽으로 하여 누어 있었던 것이 되겠다.

그리고 시신(屍身)의 오른쪽에 놓여진 마구(馬具) 및 무기(武器)는 피장자(被葬者)가 평상시(平常時) 사용(使用)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때, 이 피장자(被葬者)는 성인남자(成人男子)로서 무인(武人)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본다.

3. 출토유물(出土遺物)

출토유물(出土遺物)은 토기(土器)·마구(馬具)·무기(武器)·장신구(裝身具)의 사종(四種)으로 대별(大別)되는데 이는 피장자(被葬者)가 생전(生前)에 사용(使用)하던 것을 그대로 부장품(副葬品)으로 넣었을 것이다. 이들 유물(遺物)을 각각(各各) 설명(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토기류(土器類)

ㄱ) 유개합(有蓋盒)(寫眞 2 및 插圖 2)

이들은 동남隅(東南隅)에서 출토(出土)된 사점(四點)의 백제토기(百濟土器)인데 뚜껑(蓋)이 달린 배(杯)의 한쌍으로 볼 수 있으며 명칭(名稱)은 유개합(有蓋盒) 또는 일본(日本)에서는 개배(蓋杯)(배(坏))라 불리우고 있다. 경질(硬質)과 연질토기(軟質土器)로서 이들 4점(點)의 기형상(器形上)의 특징(特徵)은 다음의 표(表)와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토기에(土器例)는 백제토기(百濟土器) 중(中)에서는 현재(現在) 전주박물관소장(全州博物館所藏)의 수례(數例)를 제외(除外)하고는 오히려 일본(日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형편(形便)이다.

이들 사점(四點)의 유개합(有蓋盒)은 기형(器形) 자체(自體)는 모두 비슷하나 뚜껑을 받는 부분(部分)의 단면상(斷面上)으로 본 커브에 따라 두가지 종류(種類)로 나뉘어지는데, 일본토기(日本土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커브가 각(角)(\angle)을 이루는 것(插圖 2의 1,3)과 완만(緩慢)한 경사(傾斜)(\sim)를 보이는 것(插圖 2의 2,4)으로 이것은 일본(日本)의 고분시대(古墳時代)에 나타나는 수혜기(須惠器)와 토사기(土師器)의 특징(特徵) 중(中)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日本) 고분시대(古墳時代)의 토사기(土師器)나 수혜기적(須惠器的)인 특징(特徵)을 갖춘 유개합(有蓋盒)이 나타나는 것은 수혜기(須惠器) 중(中)에 토사기(土師器)의 영향(影響)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색조(色調)는 회청색(灰青色)과 담다갈색(淡茶褐色)의 두 종류(種類)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구울 때 열(熱)을 받는 시간적(時間的) 차이(差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⁴⁾

이들 토기(土器)는 형식상(形式上) 백제토기(百濟土器)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교(比較)할만한 자료(資料)가 없으나, 오히려 일본(日本)에서는 비교적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 소전부토옹씨(小田富士雄氏)가 작성(作成)한 팔녀요적군수혜기편년도(八女窯跡群須惠器編年圖)(축후지방(筑後地方)의 편년증보(編年增補))에 의(依)하면 개(蓋)를 받는 구연(口緣)의 단면(斷面)이 각(角)이 진 것은 수혜기토기중(須惠器土器中) 6세기(世紀) 반엽(半葉)에서 후반경(後半頃)에 속(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 또 插圖 2의 3에 보이는 것과 유사(類似)한 토기(土器)는 일본(日本) 고식수혜기계통(古式須惠器系統)의 토기(土器)와 흡사(恰似)하며, 이는 옹본현(熊本縣) 강전선상고분(江田船上古墳)

출토(出土)의 수혜기(須惠器)(插圖 3)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강전선상고분(江田船上古墳)은 수혜기토기(須惠器土器)와 함께 은상감(銀象嵌)으로 된 명문(銘文)이 나 있는 철제환두도(鐵製環頭刀)가 출토(出土)되어 유명(有名)하다.

〈表 1〉

구분 (區分) 삽도 (插圖)2	색조 (色調)	개(蓋)			배(杯)			개(蓋)를 받는 배(杯)의 구연(口緣) 형태(形態)	태토 (胎土)
		구경 (口徑)	기고 (器高)	최대(最大) 두께	구경 (口徑)	기고 (器高)	최대(最大) 두께		
1	담다갈색 (淡茶褐色)	10.6cm	3.9cm	0.9cm	9.6cm	3.6cm	0.9cm	각(角)이짐	연질(軟質)
2	淡茶褐色	10.6cm	3.5cm	0.9cm	8.7cm	3.6cm	1.2cm	완만(緩慢)한 경사(傾斜)	연질(軟質)
3	淡茶褐色	11.2cm	3.4cm	0.7cm	9.8cm	3.7cm	1.2cm	角이짐	연질(軟質)
4	회청색 (灰青色)	11.4cm	4.0cm	0.9cm	10.3cm	3.8cm	1.1cm	緩慢 한 傾斜	경질(硬質)

그 명문(銘文) 중(中) 「치천하복□□□치대왕(治天下復□□□齒大王)」이 보이는데 반정천황(反正天皇)(406~409)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검(劍)은 송서(宋書)에 의(依)하면 서기(西紀) 438년 전후(前後)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고분(古墳)의 년대(年代)도 5세기 후반(世紀後半)의 대표적(代表的)인 것이며 수혜기(須惠器) 자체(自體)도 대개(大概) 오세기(五世紀) 후반(後半)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⁶⁾

따라서 이 년대(年代)를 거꾸로 백제토기(百濟土器)에 적용(適用)해 본다면 늦어도 대개(大概) 5세기(世紀) 후반(後半)에서 6세기(世紀) 후반(後半)에 속(屬)하는 것임에는 틀림 없겠다.

그런데 이 고분(古墳)에서는 기타(其他) 용문(龍文)의 투조관모(透彫冠帽)·금제이식(金製耳飾) 등(等) 삼국시대(三國時代)와 관련(關聯)된 우수한 공예품(工藝品)이 출토(出土)되고 있어 백제(百濟)와의 관련(關聯)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ㄴ)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寫眞 3 및 插圖 4)

이것은 청회색경질(靑灰色硬質)의 소병(小瓶)에 유사(類似)한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로 고(高) 16.7cm 구경(口徑) 8.5cm 저경(底徑) 8.8cm 동부최대경(胴部最大徑) 16.2cm 기벽(器壁)의 두께 0.4~0.5cm이다.

이 호(壺)는 평저(平底)로서 동부(胴部)가 불러 안정감(安定感)이 있으며 기표면(器表面)에는 타출문(打出文)으로 격자문(格字文)이 나 있다.

그런데 구연부(口緣部)에는 양각(陽刻)의 돌기대(突起帶)가 있으며 나팔꽃모양 구연(口緣)이 밖으로 벌어진 것이 매우 특이(特異)한데, 이는 중국육조시대(中國六朝時代)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적(特徵的)인 것으로서 백제(百濟)의 토기(土器)에도 영향(影響)을 주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의 예(例)로써 최근(最近)에 발굴(發掘)된 서울 강남구(江南區) 가락동(可樂洞) 3호분(號墳) 및 방이동(芳莢洞) 4호분(號墳) 백제석실고분(百濟石室古墳)에서 출토(出土)된 바 있다.⁷⁾

나. 마구(馬具)

ㄱ) 등자(鏡子)(寫眞 4 및 插圖 5)

등자(鏡子)는 마구(馬具)의 일종(一種)으로 김기웅씨(金基雄氏)가 정의(定義)한 바와 같이 말에 올라탈 때 던기 위(爲)한 것이며 아울러 말 위에 올라 앉았을 때 발을 올려 놓고 몸을 안전(安全)하게 하기 위(爲)한 것으로⁸⁾ 이곳에서 출토(出土)된 등자(鏡子)는 철제(鐵製)로 비록 심하게 부식(腐蝕)되어 파손(破損)되었지만 원형(原形)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한쌍이 출토(出土)되었다. 그 크기는 전장(全長) 14.7cm · 14.9cm 윤장경(輪長徑) 9.3cm · 8.7cm의 소형(小形)이다. 이 등자(鏡子)는 형태상(形態上) 드리움대가 수직(垂直)으로 붙고 발을 걸치는 부분(部分)이 등글어 등근등자(운등자(輪鏡子))라 볼 수 있다.

ㄴ) 마함(馬銜)(寫眞 5 및 插圖 5의 하열중앙(下列中央))

재갈(마함(馬銜))은 마구중(馬具中) 말을 다루어 부리기 위(爲)한 기구로서, 현재(現在) 재갈쇠 · 재갈멈추개 · 고삐이음쇠(비(轡))의 3부분(部分)이 완전(完全)이 남아 있으나, 그 부식정도(腐蝕程度)가 심(甚)하다.

크기는 직경(直徑) 0.5cm 정도의 철봉(鐵棒) 양단(兩端)에 직경(直徑) 1.5cm의 고삐이음쇠를 달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形態)의 마함(馬銜)은 경주(慶州) 미추왕릉지구(味鄒王陵地區) 제삼묘곽(第三墓槨)의 부곽(副槨)에서⁹⁾ 또 충남(忠南) 연산군(連山群) 양촌면(陽村面) 신흥리(新興里) 소재(所在)의 수혈식석곽분(竪穴式石槨墳)(백제고분(百濟古墳))에서도 출토(出土)된 바 있는¹⁰⁾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전형적(典型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무기(武器)(寫眞 4 및 插圖 5의 상(上))

ㄱ) 대도(大刀)

이것은 철제장검(鐵製長劍)으로 수화부식(銹化腐蝕)의 정도(程度)가 아주 심하고, 파손(破損)되어 여러 토막으로 부러져 있으며 자루부분(병부(柄部))도 썩어 없어져 자세(仔細)히 알 수는 없다. 현존장(現存長) 81cm, 폭(幅) 3.6cm 두께 1.6cm이다.

ㄴ) 소도(小刀)

이것은 고분(古墳)에서 대도(大刀)와 함께 한 셋트로 출토(出土)된 소도(小刀)(도자(刀子))로서 장(長) 27cm 폭(幅) 3cm 두께 0.8cm이다.

ㄷ) 철창(鐵槍)(插圖 1)

본래(本來)의 유물배치도(遺物配置圖)에는 동남우(東南隅)에서 창(槍)끝을 남(南)쪽으로 향(向)한 철제창(鐵製槍)이 출토(出土)된 것으로 표시(表示)되어 있으나 현재(現在) 실물(實物)은 볼 수 없다.

라. 동경(銅鏡)(寫眞 6 및 插圖 5)

이 동경(銅鏡)은 김원룡교수(金元龍教授)에 의(依)해 자세(仔細)히 언급(言及)된 바와 같이 백동질(白銅質)의 변형육수경(變形六獸鏡)(직경(直徑) 11.4cm 후(厚) 2.5mm)과 백유경(百乳鏡)(직경(直徑) 9cm 후(厚) 2.5mm)의 2점(點)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령총(金鈴塚)(백유경(百乳鏡)) · 진주고분(晉州古墳)(변형육수경(變形六獸鏡)) · 전량산(傳梁山)(변형칠유경(變形七乳鏡)) · 경주황오리고분(慶州皇吾里古墳)(변형사유경(變形四乳鏡))의 사례(四例)와 함께 모두 6예(例)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거울들은 일본(日本)에 방중국경(倣中國鏡)(변형육경(變形六鏡))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 출토예(出土例)가 희귀(稀貴)한데 비해 일본(日本)에서는 다량(多量)으로 출토(出土)되고 있어 이들은 국산품(國產品)이 아니라 일본(日本)으로부터의

문화(文化)의 역류(逆流)와 함께 수입되어 들어왔을 가능성(可能性)을 길게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¹¹⁾ 이러한 추측(推測)은 당시(當時) 백제(百濟)와 일본(日本)과의 역사적관계(歷史的關係)를 이해(理解)함으로써만이 쉽게 수궁이 가리라 믿는다.

마. 장신구(裝身具)

ㄱ) 금동제지환(金銅製指環)(寫眞 7 및 插圖의 상좌(上左) 2예(例))

출토(出土)된 위치(位置)나 크기로 보아 지환(指環)(반지)이 분명(分明)하다. 도금제(鍍金製)로 한쌍인데 크기는 직경 1.8cm, 환(環)의 두께는 0.3cm이다.

ㄴ) 금동제세환이식(金銅製細環耳飾)(寫眞7의 하좌(下左))

전자(前者) 금동제지환(金銅製指環)과 같이 도금(鍍金)을 한 것으로 출토위치(出土位置)로 보아 이식(耳飾)으로 생각된다. 직경 1.1cm 환직경(環直徑) 0.25cm이다.

ㄷ) 곡옥(曲玉)(插圖 7의 우(右))

곡옥(曲玉)은 한점(點)으로 재료(材料)는 유리이다. 상부(上部)에 직경(直徑) 0.1cm의 구멍을 뚫어 실을 꿰어 매달도록 되어 있다. 장(長) 2.7cm이다.

ㄹ) 유리구슬(插圖7의 우(右))

유리구슬(소옥(小玉))은 모두 푸른색으로 3점(點)이 보이는데 본래(本來) 중앙(中央)에 곡옥(曲玉)을 중심을 꿰어졌던 목걸이를 구성(構成)하던 것이다. 크기는 직경(直徑) 0.5~0.7cm이며 중앙(中央)에 0.1cm가량의 구멍이 뚫어져 실로 꿰도록 되어 있다.

4. 위석묘(圍石墓)의 존재(存在)

이 고분(古墳)은 남북장축(南北長軸)¹²⁾의 장방형구형석축(長方形矩形石築)을 가졌으나 동서(東西)의 양단벽(兩短壁)이 없으며 석축자체(石築自體)도 형식상(形式上) 일단(一段)만 놓아 구획(區劃)을 의미(意味)할 뿐 묘실(墓室)과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하여 지하(地下)에 간단(簡單)한 토광(土坑)을 파고 주위에 일렬(一列)로 할석(割石)을 둘러 구획(區劃)을 지은 후(後), 목개(木蓋)를 횡가(橫架)시키고 다시 그 위에 간단히 봉토(封土)를 덮은 구조(構造)로 위석묘(圍石墓)를 의미하며 이러한 고분(古蹟)은 백제고분(百濟古墳)에서 나타는 새로운 형식(形式)이 되겠다.

이와 같은 예(例)로서 나주군(羅州郡) 다도면(茶道面) 마산리(馬山里) 2구(區) 쟁기머리에서 옹관(甕棺)과 함께 3기(基)가 발굴(發掘)된 바 있다.(寫眞 8). 이들 3기(基)의 위석묘(圍石墓)는 동서장축(東西長軸)(서침(西枕))으로, 깊이 16~30cm정도 장(長) 225~260cm 폭(幅) 60~65cm의 규모(規模)로 지하(地下)에 얕은 토광(土坑)을 파고, 바닥에는 배수(排水)를 고려하여 잔자갈을 깔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구획선(區劃線)처럼 부정형 할석(不整形割石)을 이용(利用)하여 일렬(一列) 둘러고 있다. 내부(內部)에는 목곽(木槨)을 사용(使用)한 흔적(痕迹)은 보이지 않으며, 다만 목개(木蓋)를 사용하였으리라 추측(推測)되는데, 이러한 구조(構造)는 재월리고적(齋月里古蹟)과 동일(同一)한 형식(形式)의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곳 쟁기머리 고분(古墳)에서는 부장품(副葬品)으로 머리말에 청회색(靑灰色) 또는 황갈색(黃褐色) 연질토기(軟質土器) 원저호(圓低壺)를 하나 내지 들씩 놓고 있는데 이들 토기(土器)는 형식상(形式上) 백제초기(百濟初期)의 것으로 보여진다.¹³⁾

따라서 여기에 비록 단 2예(例)이기는 하지만 담양(潭陽) 제월리(齋月里)와 나주(羅州) 마산리(馬山里)의 고분구조(古墳構造)를 들어 새로이 위석묘(圍石墓)란 형식(形式)

을 설정(設定)해 보고자 한다.

백제(百濟)의 초기고분(初期古墳)에서 기단식적석총(基壇式積石塚)¹⁴⁾ 토광묘(土壙墓)¹⁵⁾ 옹관묘(甕棺墓) 등(等)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위석묘(圍石墓)는 토광묘(土壙墓)에서 좀더 발전(發展)한 새로운 변형양식(變形樣式)으로 보여진다.

5. 위석묘(圍石墓)의 연대문제(年代問題)

위석묘(圍石墓)는 그 구조자체(構造自體)가 토광묘(土壙墓)에 회석(回石)을 가(加)한 것으로 토광묘(土壙墓)에서 발전(發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석묘(圍石墓)는 토광묘(土壙墓)보다 형식상(形式上) 연대(年代)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百濟)의 토광묘(土壙墓)는 그 기원(起源)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묘제(墓制)인 토광묘(土壙墓)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백제(百濟)의 토광묘(土壙墓)는 가락리(可樂里)의 경우처럼 봉토하(封土下)에서 나타나며, 평지(平地)에 목곽(木槨)이 들어갈 만한 토광(土壙)을 파고 목곽(木槨)을 안치(安置)하는 간단(簡單)한 구조(構造)의 토광묘(土壙墓)와 적석목곽식(積石木槨式)의 두가지로 대별(大別)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토광묘(土壙墓)의 축조년대(築造年代)는 2세기(世紀)에서 3세기초(世紀初)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2세기(世紀)에서 3세기초(世紀初)는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김해시대(金海時代))가 끝나며, 4세기(世紀)가 되면 고분기(古墳期)인 삼국시대(三國時代)가 시작(始作)된다.¹⁷⁾ 이렇듯 고분기(古墳期)가 시작(始作)되면 토기(土器)도 김해토기(金海土器)에서 백제토기(百濟土器)로 바뀌는데 불행(不幸)히도 우리는 아직 백제토기(百濟土器)의 정확한 편년(編年)을 설정(設定)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形便)이다.

그런데 나주(羅州) 마산리(馬山里)에서 발굴(發掘)된 3기(基)의 위석묘(圍石墓)와 일기(一基)의 옹관묘(甕棺墓)는 백제초기(百濟初期)에 보이는 원저호(圓低壺)를 출토(出土)시키고 있어, 대개 그 축조년대(築造年代)는 토광묘(土壙墓)보다 늦긴 하나 그 상한(上限)은 3세기(世紀) 경(頃)까지 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또 담양(潭陽) 제월리(齋月里) 출토(出土) 유개합(有蓋盒)(개부(蓋付))의 경우(境遇)는 고분(古墳)의 축조년대(築造年代)와 같이 대개 5세기(世紀) 후반(後半)에서 6세기(世紀) 후반(後半)¹⁹⁾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석묘(圍石墓)는 서기(書記) 3세기경(世紀頃) 토광묘(土壙墓)에서 발전(發展)하여 적어도 6세기(世紀) 후반(後半)까지 사용(使用)되었던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일고분형식(一古墳形式)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6세기(世紀)에는 백제(百濟) 전역(全域)에 석실분(石室墳)이 보급되어 축조(築造)되고 있었지만 하나의 지방적(地方的)인 특수(特殊)한 양상(樣相)으로서 초기묘제(初期墓制)의 변형양식(變形樣式)인 위석묘(圍石墓)의 축조(築造)도 아울러 병행(併行)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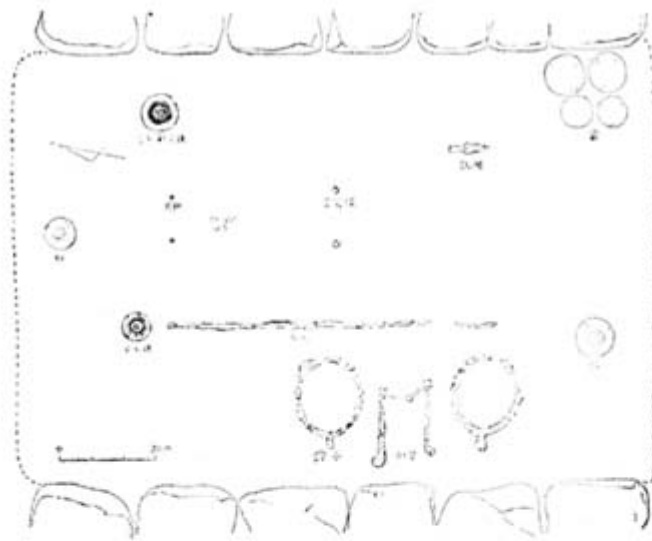
6. 결론(結言)

이상(以上)에서 이야기한 것을 종합(綜合)해 보면 담양(潭陽) 제월리(齋月里)의 백제 고분(百濟古墳)은 백제초기(百濟初期)의 묘제(墓制)인 토광묘(土壙墓)에서 발전(發展)한 새로운 변형양식(變形樣式)의 묘제(墓制)로 이러한 위석묘(圍石墓)가 서기(西紀) 3세기 경(世紀頃)에 출현(出現)하여 6세기(世紀) 후반(後半)까지 석실분(石室墳)과 관계(關係) 없이 병행축조(併行築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묘제(墓制)는 목곽(木槨)이 사용(使用)되지 않은 양와신전장(仰臥伸展葬)의 간단(簡單)한 봉토분(封土墳)이며 두동(頭同)은 현재(現在) 서침(西枕)과 북침(北枕)의 두례(例)를 보이고 있다. 담양(潭陽) 제월리고분(齋月里古墳)의 경우 피장자(被葬者)는 출토유물(出土遺物)로 부아 기마(騎馬)와 관계(關係)가 깊은 무인(武人)이며 동경(銅鏡) 또는 백제지역(百濟地域)에서 출토예(出土例)가 희귀한 유개합등(有蓋盒等)은 일본(日本)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신분(身分)임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고분(古墳)이 축조(築造)된 5세기(世紀)에서 6세기(世紀) 후반(後半)에는 백제(百濟)와 일본간(日本間)에 긴밀한 역사적(歷史的) 관계(關係)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點)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겠다.²⁰⁾ (보주(補註) : 논문중(論文中) 유개합(有蓋盒)의 편년(編年) 및 년대(年代)에 대(對)해서는 경응대학(慶應大學)의 증산청룡씨(中山淸隆氏)가 보내준 자료(資料)에 의거(依據)하였다. 증산씨(中山氏)의 후의(厚意)에 깊은 감사(感謝)를 표(表)한다. 1976.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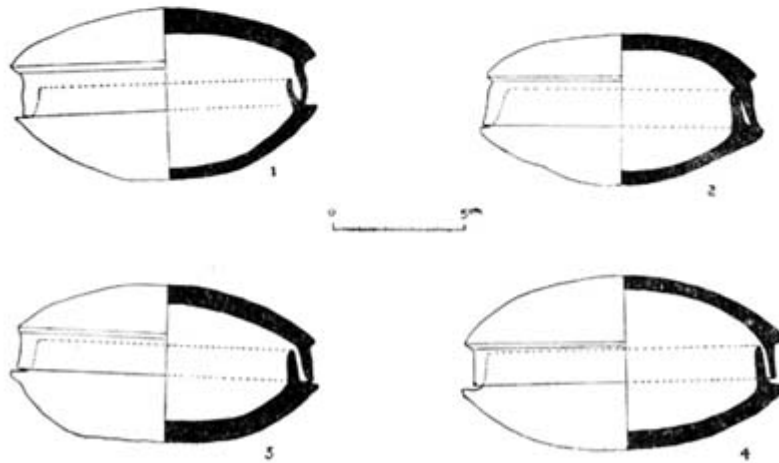
<주(註)>

- 1) 김원룡(金元龍), “담양출토(潭陽出土)의 삼국시대(三國時代) 동경이면(銅鏡二面)”, 이상백박사회갑기념논총소수(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所收), 1964. pp. 99-106.
- 2) 여기에 對하여는 전남도청(全南道廳)에 의(依)해 보고서(報告書)가 발간(發刊)되었다.(최몽룡(崔夢龍) . 대초(大草) 담양(潭陽) 「댐」 수몰지구(地區) 유적발굴조사보고(遺蹟發掘調查報告), 1976(12. p. 141). 위석묘(圍石墓)의 존재(存在)에 대(對)하여서는 1976年 2月 14日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가 주최(主催)한 한국사대토론(韓國史大討論)(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묘제(墓制))시(時) 언급(言及)해둔 바 있다.
- 3) 최몽룡(崔夢龍), “담양(潭陽) 제월리(齋月里)의 거석문화(巨石文化)”, 호남문화연구(湖南文化硏)5집(輯). 1973.
- 4) 이락의 남부지방인 텔 알히바(Tell al-Hiba) 에서 조사(調查)된 예(例)에 의(依)하면 가마에서 한시간 가량 불을 지피면 토기(土器)는 홍갈색(紅褐色)(Reddish Brown)이 나타나며 두시간정도 구우면 담회색(談灰色)(light grey)이 나타나 회색(灰色)은 갈색(褐色)보다 더 고온(高溫)이나 불을 접(接)하는 시간(時間)이 짧아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야토기(伽倻土器)에 있어서도 청회색경질토기(靑灰色硬質土器)가 갈색계통(褐色系統)의 연질토기(軟質土器)보다 고온(高溫)에서 구워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Edwad L. Ochsenchlager, “Modern Potters at al-Hiba with some Reflection on the excavated early dynastic Pottery”, 「Ethno Archaeology」 소수(所收). Monograph IV. Institute of Archaeology Univ. of California, Los-Angels. 1974. p. 153)
- 5) 소전부토웅(小田富士雄), 「입산산요적군(入山山窯跡群) 별첨부도(別添附圖). 1972.
- 6) 매원말치(梅原末治) 「옥명군(玉名郡) 강전촌선상고분조사보고(江田村船上古墳調查報告)」, (웅본현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보고(熊本縣史蹟名勝天然記念物調查報告). 第一冊. 1922. 5) 및 산본청(山本靑), 「산음고분문화(山陰古墳文化)의 연구(研究)」, 1971.
- 7) 잠실지구유적조사보고서(蠶室地區遺蹟調查報告書), 1975年度 圖版 8 및 1976年度 (방이동(芳莢洞) 4호분(號墳))
- 8) 김기웅(金基雄),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마구소고(馬具小考)”, 백산학보(白山學報) 5號, 1968, 12. pp. 139-140.
- 9) 윤세영(尹世英), “미추왕릉지구(味鄒王陵地區) 第9구역(區域)(A호(號)), 파괴고분발굴조사보고(破壞古墳發掘調查報告)”, 경주지구고분발굴조사보고(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 제1집(第一輯) 소수(所收) 1975. p. 87)

- 10) 윤무병(尹武炳), “연산(連山) 신흥리(新興里) 백제고분(百濟古墳)과 그 출토유물(出土遺物)” 백제문화(百濟文化) 第7,8합집(合輯). 1975. p. 69
- 11) 김원룡(金元龍), 전개서(前揭書)(주(註) 1), p. 101
- 12) 김원룡교수(金元龍教授)는 양희채씨(梁會采氏)의 전언(傳言)에 의(依)해 장축(長軸)은 서북(西北)-동남(東南)이리 하고 있으나 현지조사(現地調査)에 의(依)해 남(南)-북(北)임이 밝혀졌다.(전개서(前揭書). p. 100)
- 13) 안승주(安承周), “백제고분(百濟古墳)의 연구(研究)”, 백제문화(百濟文化) 칠팔합집(七八合輯). 1975 p 151
- 14) 발굴조사보고서(積石塚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大學校) 고고인류학총간(古考人類學叢刊) 第6冊. 1975.
- 15) 토광묘(土壙墓)는 서울 가락동(可樂洞)(윤세영(尹世英). “가락동(可樂洞) 백제고분(百濟古墳) 第一, 第二號墳 발굴조사보고(發掘調査報告)”, 고고학(考古學) 第3輯 1974. 12)과 충남(忠南) 서산군(瑞山郡) 대산면(大山面)(김영배(金永培), 한병삼(韓炳三), “서산(瑞山) 대산면(大山面) 백제토광묘(百濟土壙墓)의 발굴보고(發掘報告)”, 고고학(考古學) 2집(輯) 1969)등지(等地)에서 보인다.
- 16) 윤세영(尹世英), 전개문(前揭文). pp. 138-139
- 17) 김원룡(金元龍), “삼국초기(三國初期)의 고고학적(考古學的) 연구(研究)”, 서울 대학교논문집(大學校論文集) 인문사회계(人文社會系), 제(第)19집(輯) 1974. 1 p. 28
- 18) 안승주(安承周). 전개문(前揭文) p. 151
- 19) 김원룡교수(金元龍教授)는 담양(潭陽) 제월리(齋月里)의 고분(古墳)을 동경이면(銅鏡二面)의 예(例)를 들어 백제말(百濟末)이나 통일신라초(統一新羅初)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늦은 연대설정(年代設定)인 것 같다.(김원룡(金元龍), 전개문(前揭文) 주(註) 1 p. 100)
- 20) 특(特)히 성왕시(聖王時)(523~554)에 일본(日本)과 우호(友好)를 계속하여 불교(佛敎)를 전(傳)하고 기타전문가(其他專門家) 기술자(技術者)를 보내 일본(日本)의 문화(文化)에 기여(寄與)한 바가 많다 하겠다(한국사(韓國史) 고대편(古代篇) 진단학회(震檀學會) 1959. p. 438)



〔挿圖 1〕 1959年 5月 22日 遺物收拾 時 그려진 스켓치에 의한 復元圖



〔挿圖 2〕 有蓋盒

P137

〔挿圖 1〕 1959年 5月 22日 유물수습(遺物收拾) 時 그려진 스켓치에 의(依)한 복원도(復元圖)

〔挿圖 2〕 유개함(有蓋盒)



P138

[挿圖 3] 일본熊本강전선산고분출토(日本熊本江田船山古墳出土)의 유개합(有蓋盒)

[挿圖 4]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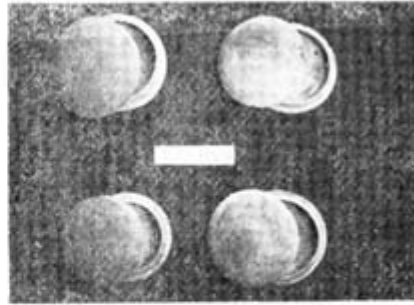
[挿圖 5] 철검(鐵劍) 단도(短刀) 마함(馬銜) 및 철등자(鐵登子)

[挿圖 6] 동 경(銅 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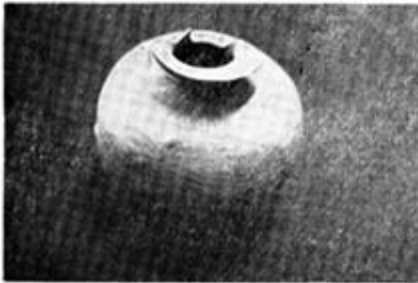
[挿圖 7] 장신구류(裝身具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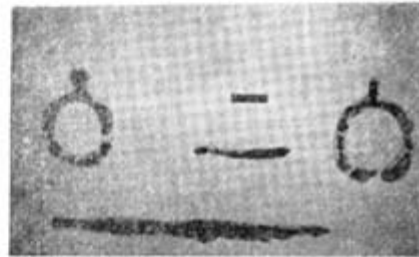
潭陽 鳳山面齊月里古墳現場(↓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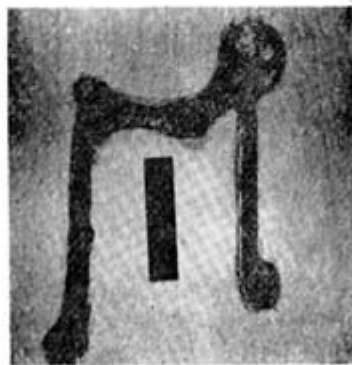
有蓋盒(蓋付)



平底短頸壺



鐵劍・短力 및 鐵登子



馬 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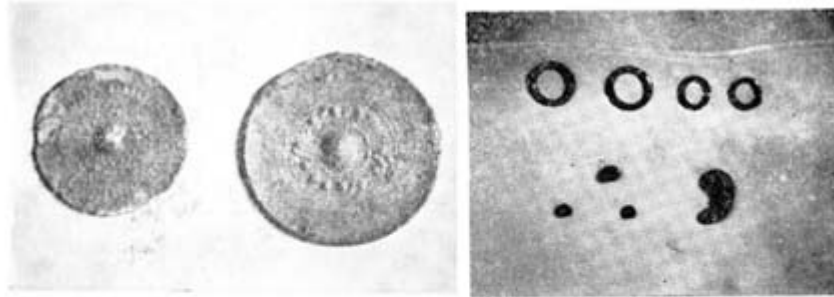
P139

담양(潭陽) 봉산면제월리고분현장(鳳山面齋月里古墳現場)(↓表)

유개합(有蓋盒)(개부(蓋付))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철검(鐵劍) 단력(短力) 및 철등자(鐵登子)



銅 鏡

裝身具類



羅州 茶道面 馬山里 쟁기머리에서 發掘된 百濟 圍石墓 三基

P140

마함(馬銜)

동 경(銅 鏡)

장신구류(裝身具類)

나주(羅州) 다도면(茶道面) 마산리(馬山里) 쟁기머리에서 발굴(發掘)된
백제(百濟) 위석묘(圍石墓) 삼기(三基)